

○ 등록 안내

• 사전등록마감일: 2024년 1월 26일 (금)

• 등록비: 무료

• 등록방법

E-mail (otolar@yuhs.ac)로 참가신청서 양식에 맞게 아래 정보를 보내주시십시오.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E-mail, 의사면허번호)

• 평점

전문의 5점, 전공의 1점 (예상)

• 문의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박성자 사무원
Tel: 02-2228-3600 / Fax: 02-393-0580
E-mail: otolar@yuhs.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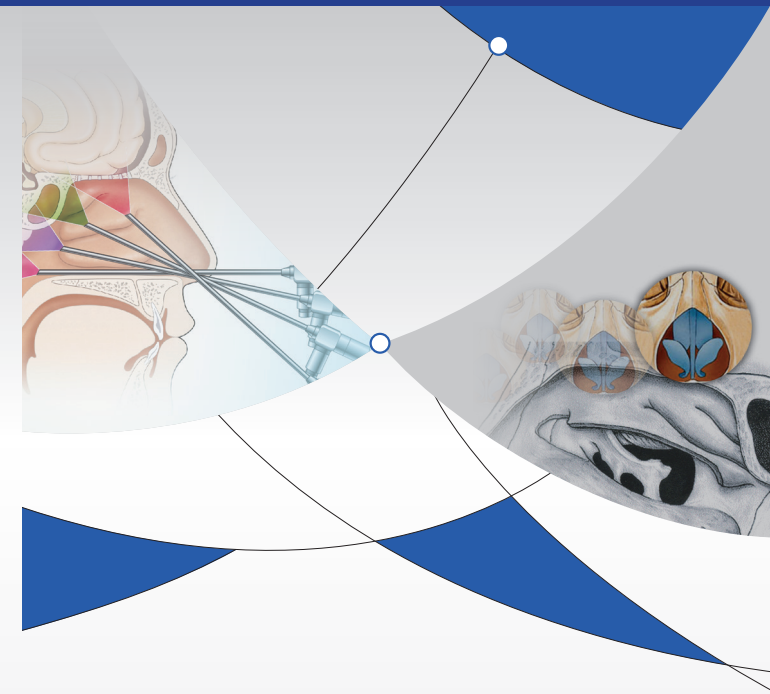
○ 학회장소 안내



▶ 금화터널을 지나 오시는 경우

- ① 세브란스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사이의 치과병원 진입로 언덕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 ② 병원 정문을 통해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연희동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서 좌회전하여 치과대학병원 진입로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참가신청서 양식

성 명 : (전문의, 전공의)

구 분 : 전문의 PhD 전공의 대학원생 연구원

소 속 :

직 위 :

연락처 :

E-mail :

의사면허번호 :

제42차 연세 비부비동 심포지엄

in conjunction with

제3차 세브란스 두개저내시경센터 심포지엄

일시: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장소: Avison BioMedical Research Center (ABMRC) 유일한홀

주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기도점액연구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세브란스 두개저내시경센터

후원:  대한비과학회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제 42차 연세 비부비동 심포지엄 및 제 3차 세브란스 두개저내시경센터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어느덧 연세 비부비동 심포지엄 및 교수 술 해부실습을 시작한지 42번째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난도 질환인 두개저 종양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위해 2021년 두개저내시경센터 개설 이래, 두 차례의 세브란스 두개저내시경센터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그 성원을 이어 받아, 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겨 여러 선생님들을 직접 모시고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심포지엄은 연세 비부비동 심포지엄과 세브란스 두개저내시경센터 심포지엄이 공동으로 개최되어, “비부비동 및 두개저 종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비부비동 및 두개저 종양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훌륭한 연구 실적을 갖고 계신 연자들을 모시고 최신 지견에 대해 배워보고, 이를 바탕으로 알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전 첫번째 세션에서는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 비부비동 악성종양에 대한 다학제적 치료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수술적 치료와 경과관찰 전략, 면역치료 및 표적치료, 방사선치료, 그리고 영상의학적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세션으로는 신경섬유종증 2형의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패널 토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문 유전질환인 신경섬유종증 2형은 질병의 복잡성 및 기능 보존의 이슈로 인해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임상유전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각 분야 패널리스트들을 모시고 여러 환자 케이스를 통해 최적의 치료전략을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후 첫 세션에는 두개저와 관련된 다양한 안과적 이슈에 대해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와종양에 대한 수술법,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내시경적 경안와 두개저 접근법,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수술 중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두개저 수술 후 결손의 재건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관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두개저 결손에 대한 신경외과적 재건 노하우, 다양한 성형외과적 재건법, 그리고 두개저 내시경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강 생리 문제 및 후각 장애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여러 선생님께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분께서 참석하시어 다양한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 기도점액연구소장 김창훈
연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 세브란스 두개저내시경센터장 장중희

내용 및 연자

08:50 **Opening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장중희 (연세대 신경외과)

이규성 (연세대 신경외과 명예교수)

Session 1. Multidisciplinary treatment for rare histological sinonasal cancers: mucosal melanoma, adenoid cystic carcinoma, olfactory neuroblastoma

좌장: 윤주현
(연세대 이비인후과 명예교수)

09:00-09:20 Surgical approaches and follow-up strategies

조형주 (연세대 이비인후과)

09:20-09:40 Immunotherapy and targeted therapy

김혜련 (연세대 중앙내과)

09:40-10:00 Radiation therapy: current practice and perspectives

김경환 (연세대 방사선종양학과)

10:00-10:20 Imaging of sinonasal tumors: focusing on rare pathologies

김진아 (연세대 영상의학과)

10:20-10:40 **Coffee break**

Session 2. Multidisciplinary treatment for neurofibromatosis type 2

좌장: 장중희 (연세대 신경외과)

10:40-11:50 Panel discussion with short talks

김진아(연세대 영상의학과), 오지영(연세대 임상유전과), 문인석(연세대 이비인후과), 최선아(연세대 신경외과), 윤홍인(연세대 방사선종양학과)

11:50-13:00 **Photo & Lunch**

Session 3. Ophthalmology in skull base

좌장: 윤진숙 (연세대 안과)
김의현 (연세대 신경외과)

13:00-13:20 Surgical treatment for orbital tumors - classical approach

고재상 (연세대 안과)

13:20-13:40 Surgical treatment for orbital tumors - complimentary approaches

임승훈 (경희대 신경외과)

13:40-14:00 Endoscopic transorbital approach (ETOA): a new route to attack brain tumors

나민균 (한양대 신경외과)

14:00-14:20 OCT in pituitary adenoma management

한재용 (연세대 안과)

14:20-14:40 Intraoperative monitoring of vision and extraocular muscles: VEP and EOG

권영남 (연세대 신경과)

14:40-15:00 **Coffee break**

Session 4. Reconstruction & Postoperative care following skull base surgery

좌장: 김창훈 (연세대 이비인후과)

15:00-15:20 Tailored skull base reconstructions: know-hows & tips

문주형 (연세대 신경외과)

15:20-15:40 State-of-the art reconstructive techniques for surgical defects

홍종원 (연세대 성형외과)

15:40-16:00 Nasal physiology & Postoperative nasal care

강주완 (연세대 이비인후과)

16:00-16:20 Postoperative olfactory dysfunction management

나민석 (연세대 이비인후과)

16:20 **Closing remarks**

김창훈 (연세대 이비인후과)